

박준영

2017103725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입학 전: usually game, 영어를 일찍 배우기 시작

초등학교: usually game, 영어 꾸준히 배움, 그 외.... Nothing,
과학자의 꿈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게임을 끊고 공부에 매진, instead 게임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봄,
게임 개발에 관련된 스페셜 다큐들을 많이 시청

고등학교: 게임 채널들을 섭렵함(LOL, 던파, 스타크래프트 등),
수학 과학만 죽어라 공부(내신 던짐)



1. 소극적, 게임에 관심만 가득 → 적극적, 프로그래밍에 능동적으로!
2. 이 학과에 몸 담겨 가는 사람 → 이 학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3. 1기로서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1.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등)
2.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역시 경희대에서?)
3.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게임 개발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4. 나만의 게임 회사를 세울지, 입사한 회사의 개발자가 될지는 고민 중...

FREE TALK

Q&A



Thank you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